

# 배창호 후기작에 나타난 ‘한’에 대한 재해석

- 방어기제로 읽는 <정>과 <길>의 정서구조\*

안승범\*\*

1. 서론
2. ‘한’의 개념적 포괄성과 자아심리학적 함의
3. <정>, 운명에 대한 포월 의지
4. <길>, 불가능한 용서를 위한 자기 초극
5.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적인 배경과 소재를 통해 ‘한’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배창호의 <정>(1999)과 <길>(2004)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한’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담론은 꾸준히 집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최근의 자아심리학적 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을 자아가 취하는 ‘방어기제’의 복합적인 발현 양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한’을 방어기제로 풀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 기존 선행 연구와 구별되는 것은, ‘한’이 하나의 방어와 등가 관계를 이루는 개념이 아니라, 특징적인 방어(들)의 역동적 작동 상태라는 가설을 적용한 점이다. 다시 말해, ‘한’이 내적 아픔을 삭이고 푸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고 본다면, 여러 방어가 상황에 따라 개별적순차적동시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할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KU연구전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영화를 분석한 결과 <정>에서 순이에게 내면화 된 ‘한’은 성숙한 방어의 복합적인 발현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순이는 ‘이타주의’, ‘억제’, ‘예상’과 같은 방어를 통해 도덕적·윤리적 주체로 거듭났으며, 절망적인 자기 현실을 포월하여 운명과 화해할 수 있었다. 한편, <길>에서 태석이 수용한 ‘한’은 변별적인 방어의 순차적 작동으로 볼 수 있었다. 태석의 인물관계를 주목해 보면, 각각 ‘전위’에서 ‘이타주의’로, ‘반동형성’에서 ‘억제’로, ‘승화’에서 ‘이타주의’로 방어가 전환되는 양상이 발견된다. 그러한 내적인 변화 속에서 태석은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실천하고, 억눌린 과거의 경험들을 초극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한, 정서구조, 방어기제, 자아심리학, 배창호, <정>, <길>

## 1. 서론

배창호는 세대에 따라 상이한 기억으로 회자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초중반에 배창호 영화를 집중적으로 음미했던 세대는, 지적인 통찰과 해학적인 웃음을 동시에 견인했던 감독으로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 시기 배창호는 하명중 등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신인감독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당시 그의 영화는 대중적인 감응력을 갖춘 독특한 서사전개를 선보였다. 영화계 안에서 현장경험을 쌓은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매우 안정된 연출력을 증명해낸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그는 <꼬방동네 사람들>(1982), <철인들>(1982), <적도의 꽃>(1983), <고래사냥>(1984),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4), <깊고 푸른 밤>(1985)을 통해 새로운 영화세대의 출현을 상징하는 감독으로 조명 받는다. 데뷔작인 <꼬방동네 사람들>부터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지만, <적도의 꽃>을 기점으로 확실한 흥행영화 감독이라는 찬사도 얻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작품을 제외하면, 미학성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낸 성취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배창호의 등장은 영화제작 환경과 검열제도가 개선되기 시작한 198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초기 영화 중 상당수가 당시의 청년문화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분명하게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인호, 박완서 등이 쓴 원작 소설에 기댄 면이 있지만, 인생과 사랑을 통찰하기 위한 형식으로 이채로운 로드무비(road movie)를 시도한 점도 눈에 띈다. 요컨대, 이 시기 서른을 갓 넘긴 청년 배창호는 한층 자유로운 시대적 조류 속에서 세대의식을 반영해가며 특징적인 영화들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황진이>(1986)에서 그는 극적 긴장을 자아내는 서사적 장치들과 타협하지 않고 영상 자체의 미학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그는 고정 카메라와 딥 포커스(deep focus), 롱테이크(long take) 쇼트를 통해 프레임 내 인물과 배경의 조화로운 구성에 힘을 쏟는다.<sup>1)</sup> 이후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안녕하세요 하나님>(1987)을 거쳐 <러브 스토리>(1994)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은 소재나 내용, 예술적 성취도의 측면에서 균질한 평가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일부 사회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제외하면, 사랑에 관한 그의 생체험과 종교적 태도 등이 매우 진솔하게 녹아있는 작품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시기에 배창호 영화를 집중적으로 접한 세대는 연출가로서 배창호에 대한 다른 기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1999)과 <길>(2004)은 연출자로서 완숙기에 접어든 배창호가 충무로의 제작 환경과 절연하고, 영화에 대한 자기 확신과 심미적 자의식을 투영해 만든 작가영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

1) 국내 최초로 파나비전 카메라가 활용된 영화로 와이드 영상에 담긴 정교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영화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설은 다음 논문 참고. 김지석, 「<황진이>를 통해서 본 배창호 감독의 철학적 탐험과 미학적 모험」, 『영화언어』 10호, 1992, 78-95쪽.

것이다. 결과적으로, 배창호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대중적 관심은 받지 못했지만, 그의 후기작이 갖는 영상미학의 일단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화들이기도 하다.<sup>2)</sup> 주목할 것은, 이들 작품이 퇴색되어 가는 한국의 문화와 풍속을 시정각적으로 재현한다는 점, 토속적인 직업을 가진 장인(匠人)의 삶을 재구한다는 점, 한국인의 정서구조를 대표한다고 알려진 한 恨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해석을 시도한다는 점 등에서 일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에 대한 재해석의 문제는 그보다 앞서 언급된 특징들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영화적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해, <정>과 <길>은 ‘한국적인 것’이라고 통칭되는 소재를 통해 한국인 특유의 심리적 원형에 접근해 보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글은 영화적 성취에 비해 평단의 관심이 소략적이었던<sup>3)</sup> <정>과 <길>의 주제의식을 ‘한의 정서에 대한 재해석’의 측면에서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지의 집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상스타일이나 기법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내러티브 전개 과정에서 주요 인물의 심리와 정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방법적으로, 자아 심리학 분야에서 집적되어 온 방어기제에 관한 논의들은 유의미한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한국인에게 ‘신화화/탈신화화’의 대상으로 역설적 개념어가 된 ‘한’을 방어기제의 복합적인 착종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간접적으로는, 두 영화가 드러내고 있는 ‘한’의 정서구조를 조명해 보면서 작가

2) 해외 영화제 수상경력이 반드시 영화의 작품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나열하면 <정>은 1999년 이탈리아 우디네 극동영화제 관객상, 2000년 프랑스 베노데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 같은 해 부산영화평론가협회 감독상을 수상했다. <길>은 2005년 필라델피아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3) 배창호 영화에 대한 연구는 수효 면에서 소략적인 형편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낭만’, ‘사랑’, ‘감상주의’ 등을 키워드 삼아 필모그래피 전반을 살피는 작가론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경향이 있다.(김지석, 「낭만적 탐색자: 배창호 감독론」, 『영화연구』 9호, 한국영화학회, 1993, 81-109쪽, 이일환, 「사랑의 추구자- 배창호」, 『영상영어교육』 2권 2호, 영상영어교육학회, 2001, 117-127쪽, 김수남, 「배창호의 작품세계론: 감상주의의 정체성 탐구」, 『영화교육연구』 5권, 한국영화교육학회, 2003, 27-48쪽 등)

주의 감독으로 돌아선 배창호의 심미적인 도전을 읽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

## 2. ‘한’의 개념적 포괄성과 자아심리학적 함의

‘한’은 다양한 정서를 포괄하는 관념어로 환원되어 왔다. 이를테면, ‘한’은 체념, 비애, 원망, 한탄, 패배감, 억울함, 답답함, 후회, 고통, 허무감, 집념 등 불균질한 감정과 심리를 선택적으로 끌어안는 구심력을 가진다. 덧붙여, ‘한’은 세대를 거슬러 한민족이 공유해 온 특유의 정서구조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한’은 민족 특유의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단어로, 개념적 확장성이 돋보이는 감정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이 민족의 고유한 정서라는 평가에 관해 과거와는 다른 견해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미망을 포괄하기 어려운 ‘한’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재인식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한’의 의미와 성격에 관한 신화화, 탈신화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을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구조로 인정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긴 시간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집적되어 왔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두 언급하는 게 어려울 정도다.<sup>4)</sup> 기술과정에서 세부적인 시각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입장은 대체로 일관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고은의 견해는 민족 고유의 정서로 신화화 된 ‘한’에 관한 이해를 요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동서양 어디에도 ‘한’에 관한 개념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본다. 덧붙여 ‘한’을 아픔이 쌓이고 가라앉으면서 우리 민족 안에 거의 유전적으로 축

---

4) 단행본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여동찬, 『이방인이 본 한국, 한국인』, 중앙일보사 부설경제문제연구소, 1987; 한완상·김성기, 「한에 대한 민중사회론적 시론-종교 및 예술체험을 중심으로」, 김진균 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1987; 고은, 「한의 극복을 위하여」, 서광선 편, 『한의 이야기』, 보리, 1988; 문순태, 「한이란 무엇인가」, 서광선 편, 『한의 이야기』, 보리, 1988; 김열규, 『한국인 우리들은 누구인가』, 자유문학사, 1988; 가세 히데야키, 『한의 한국인, 황공해하는 일본인』, 한국브리태니커 편집실 역, 한국 브리태니커, 1988.

적된 것이라 진단한다. 그 때문에 그의 관점에서 ‘한’이란 한국인에게만큼은 어느 정도 생득적인 것으로 외국어로의 번역이 어려운 단어다. 개념적으로는 영구적인 절망이 낳은 체념·비애의 정서<sup>5)</sup>로 해석되었다. 최길성의 연구도 이 같은 견해를 수용·연장한다. 그는 70년대 이후 ‘한’의 문제가 문학 연구의 장 안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면서 그는 ‘한’이 감정을 나타내는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 표출되고 있다<sup>6)</sup>는 점에 착안한다. 그의 연구를 ‘한’의 문화, 즉 ‘한문화’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한’을 비교문화학적 맥락에서 다루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한’의 고유성을 신비화할수록 ‘한’의 개념이 인상주의적인 논평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의도 상당하다. 그 중 천이두는 기존에 진행된 ‘한’에 관한 논의가 한의 일면적 속성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 다층적·상호 모순적 총체성을 일원적으로 포착하는 데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한’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있을 수 있고, 동아시아 삼국뿐만 아니라 서양의 경우라 해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에게 ‘한’은 개개의 주체 안에서 초극되는 과정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sup>7)</sup>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적 ‘한’을 언급하는 바, 그 핵심을 ‘삭임의 기능’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국인의 주체에 있어서 한의 부정적 속성은 끊임없이 ‘삭는’ 것이며, 이 ‘삭임’의 기능에 의하여 한의 독소, 즉 공격성, 퇴영성은 초극되어 미학적·윤리적 가치로 승화·발효되는 것이다. 즉 한국인은 자신의 한을 ‘삭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으로 성숙하는 것이며, 그 ‘삭은’ 한을 ‘푸는’ 과정에서 이를 즐기는 민족이라 할 수 있다.<sup>8)</sup>

---

5) 고은, 앞의 책, 25쪽.

6) 최길성, 앞의 책, 17쪽.

7)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4, 11-12쪽.

8) 위의 책, 101쪽.

천이두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들어 ‘한’의 내포적 복잡성에 주목한 후 이 개념이 민족적 특수성과 인류의 보편성이 착종된 광의의 개념이란 것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한 듯 보인다.<sup>9)</sup> 그 중에서 민족적 정서를 집약하는 단어로 신화화 된 ‘한’ 개념을 가장 탈색시키는 연구는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계속되어 왔다.<sup>10)</sup> 아직 본격적인 담론장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이들 연구는 인상주의적인 분석에 그쳤던 ‘한’의 속성을 임상의학 적 통계자료와 심리학에서 활용해 온 도구적 방법론을 이용해 재검토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예컨대, 정신과 전문의로 화병(火病) 연구에 주력해 온 민성길은 일찍이 신경증 환자의 증상을 분석하면서 화병과 ‘한’을 긴밀하게 연결시킨 후, 화병의 방어기제를 다각도로 살펴본 바 있다.<sup>11)</sup> 방어기제에 있어서 그가 밝히는 ‘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어기제에 있어 한은 신체화, 분리-투사, 수동공격성, 섭취, 원시적 이상화가 특징이었다. 대응전략에서 한은 자극 감소, 자기 동정, 걱정 분담-의존이 특징이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한을 화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화병이 있다는 사람에게서 한도 많았다. (중략) 정신증상에 있어서는 피해의식과 건강염려증이 심한 반면 과민성의 적음이 특징이었다. 한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다. 한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한이 쌓이면 정신장애나 신체질병이 생긴다는 견해가 많았다.<sup>12)</sup>

9) 그 예로 다양한 종교, 철학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이 각자의 학문적 배경 안에서 ‘한’의 혼종적 개념을 밝히는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김진 외, 『한의 학제적 연구』, 철학과 현실사, 2004.

10) 정신의학적 접근에서는 ‘한’을 ‘비애의 감정’, ‘한국인의 억압된 콤플렉스’, ‘불완전한 역제의 방어기제’, ‘화병의 원인인 동시에 치유책’ 등으로 개념화해 왔다. 고영간·김진영, 「한국인의 정서적 지혜- 한의 삭힘」, 『정신문화연구』 제28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9, 258쪽에서 재인용.

11) 민성길, 「화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제34권 11호, 대한의학협회, 1991, 1189-1198쪽.

12) 민성길, 「한의 정신병리학」, 라깡 정신분석연구회 편, 『코리아 이마고』, 인간사

이처럼 ‘한’을 정신의학, 혹은 심리학적 검토 대상으로 본 논의에는 오영희의 연구도 포함된다. 그는 한국인의 고유 정서로 인식되어 온 ‘한’을 치유의 대상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심리적 극복의 방식으로 ‘용서’를 제안한다. 용서는 ‘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 방식인 것이다.<sup>13)</sup> 요컨대, ‘한’을 치유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의 긍정적 작용을 간과한 면이 있지만, 이 연구도 ‘한’의 정서구조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한’ 개념을 탈신화화하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미리 밝히면, 자아심리학적 관점에서 ‘한’의 속성들을 일별해보는 방식이 매우 유효하다는 논점을 전제한다. 비슷한 논점을 공유하는 연구물 중에서는 ‘한’을 삭임과 관련된 심리학적 기제로 설명한 시도가 눈에 띈다.<sup>14)</sup> ‘한’이 성숙한 방어기제인 ‘억제(suppression)’에 해당하는 정서적 대처기제라는 것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조지 베일런트(George vaillant)는 ‘억제’를 억압된 욕구, 감정, 혹은 불편한 경험들이 주는 심리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참아내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지연하는 기제로 본다. 미국정신병리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제안한 진단체계인 DSM-IV<sup>15)</sup>로 보완하면, ‘억제’ 이면서 또한 ‘억압(repression)’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최근의 자아심리학적 논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내면의 억압된 욕구와 불편한 감정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개념을 좀 더 개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예컨대, 최초의 고통과 슬픔이 닦혔을 때, 그에 대한 정서 조절과 관리는 개인에 따라 수의적·불수의적

---

상, 1998, 68쪽.

13) 오영희, 「용서를 통한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7권 1호, 한국심리학회, 1995, 89쪽.

14) Ko, Young-gun, Salovey, Peter, Kim, Jin-young, “Sakhim of Han as a mature suppression: Implications for cancer patients’ emotional coping”,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2004, pp. 1003-1026.

1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으로 복잡한 과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절망적 현실에 대처하는 내면의 메커니즘이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 글은, ‘한’이 하나의 방어와 등가 관계를 이루는 개념이 아니라, 특징적인 방어(들)의 역동적 발현 상태라는 가설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한’ 개념이 부정적인 감정을 삭이는 과정과 푸는 과정 모두를 수렴한다고 보고, 방어의 개별적·순차적·동시적 작동을 인정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자아의 주요한 과제는 내면에 불안을 안기는 다양한 위협 요인을 처리하는 일인데, 그러한 요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서 달성되기도 하고, 불안을 줄이는 이채로운 선택을 고안하는 것으로 실천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면의 기능은 다른 방어기제들에 대한 설명인데, ‘한’을 삭이고 푸는 과정과 근본적으로 연결된다.

물론, 이 같은 논의를 더 효과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을 민족적 유전의 개념으로 단정짓지 않고, 보편적인 개인 내면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방어기제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담론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에 의해 제시되었고 이는 인간의 보편적 정신체계를 다룬다. 프로이트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발표된 여러 글을 통해 총 17가지나 되는 방어기제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방어기제에 대한 논의를 충분한 분량으로 기술한 선구적 연구자는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다. 그녀는 『자아와 방어기제(The Ego and Mechanisms of Defense)』를 통해 방어기제에 관한 아버지의 견해를 확장하여 그 개개의 특성을 더욱 명료하게 밝힌다.

최근의 연구는 방어의 속성을 더욱 미시적으로 분변한 후, 유사 기능의 방어들을 분류·구조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모두 설명할 수 없기에, 단 하나의 사례를 말하면 아서 J. 클락(Arthur J. Clarke)은 방어기제의 속성을 네 가지로 체계화한 바 있다. 무의식적 과정, 주관적 왜곡, 고통스러운 정서와 갈등, 자동적이고 미분화된 반응 등이 바로 그것이다.<sup>16)</sup> 이러한 분류는 개인의 내면을 장악한 ‘한’의 정서구조와 발현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논의가 된다. 방어기제에 관한 네

속성이 선택·차용되는 과정으로 ‘한’을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조지 베일런트는, 인간이 성장해 가면서 성숙한 방어를 더 나은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가 증명하고자 했던 건, 성숙한 방어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정신건강을 누린다는 사실이다.<sup>17)</sup> 그 과정에서 18가지 방어기제가 성숙도에 따라 위계화 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방어기제를 파악하는 상호 배타적인 방식<sup>18)</sup>

방어 스타일		갈등의 근원							
		정서/본능/욕망	양심/문화	관계/사람	현실	자기/주체	관념	정서	대상
정신병적	망상적 투사	외현화된	과장된	왜곡된	왜곡된	인위적 대상	과장된	과장된	인위적 자기
	부인	무시된	-	무시된	무시된	전능한	무시된	무시된	무시된
	왜곡	과장된	무시된	왜곡된	왜곡된	전능한	변경된	변경된	일변화된
미성숙한	투사	외현화된	-	왜곡된	과장된	인위적 대상	-	-	인위적 자기
	공상	-	무시된	내부로 취해진	-	전능한	-	감소된	내면의 자기
	건강 염려증 (신체화)	왜곡된	-	평가절하된	왜곡된	-	변경된	화가 고통이 되다	전치된
	소극적 공격	자신에게 향한	과장된	과장된	-	인위적 대상	-	-	인위적 자기
	행동화	과장된	무시된	전치된	-	전능한	무시된	무시된	일변화된

16) 아서 J. 클락,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2005, 11쪽.

17) Vaillant, G. E., Bond M., & Vaillant, C.,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1986, pp.786-794.

18) 조지 베일런트, 『행복의 지도』, 김진영·고영건 역, 학지사, 2013, 62-63쪽.

방어 스타일		갈등의 근원							
		정서/본 능/욕망	양심/ 문화	관계/ 사람	현실	자기/ 주체	관념	정서	대상
	해리	변경된	변경된	과장된	-	-	-	변경된	
신경증적 (중간수준)	전위	-	-	전위된	최소화된	-	-	-	전치된
	고립/ 이지화	최소화된	과장된	멀리 떨어진	-	-	-	무시된	-
	억압	위장된	-	-	최소화된	-	-	무시된	-
	반동형성	무시된	과장된	-	-	-	역전된	역전된	-
성숙한	이타주의	최소화된	과장된	-	-	-	-	-	인위적 자기
	승화	위장된	-	-	-	-	-	감소된	-
	억제	최소화된	최소화된	최소화된	최소화된	-	-	-	-
	예상	-	-	-	-	-	감소된	감소된	-
	유머	-	-	-	-	-	과장된	변경된	-

지난 100여 년간 수많은 방어기제가 제시되었지만, 연구자나 상담사들의 관점이 상의하여 방어의 종류와 성격, 기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다. 예컨대, 프로이트 부녀의 방어기제에 대한 초석적 연구 이후, 현재까지 50가지 이상의 방어가 논의된 바 있다.<sup>19)</sup> 베일런트는 안나 프로이트의 가설을 일부 수정한 후, 그간의 방어기제 관련 연구를 집대성해서 위와 같은 도표를 제안한다. 요약하면<sup>20)</sup>, 정신병적 방어는 다른 수준의 방어와는 달리 외부 현실에 대해 지각한 내용을 크게 변형시킨다. ‘부인(denial)’을 포함한 3개의 방어가 이에 속한다. 한편, 미성숙한 방어는 성격 장애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성인이 되어 감에 따라 점차 발달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엔 ‘투사(projection)’를 포함해 6개의 방어가 해당된다. 한편, 신경증적 방어는 미성숙한 방어들에 비해 더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성숙한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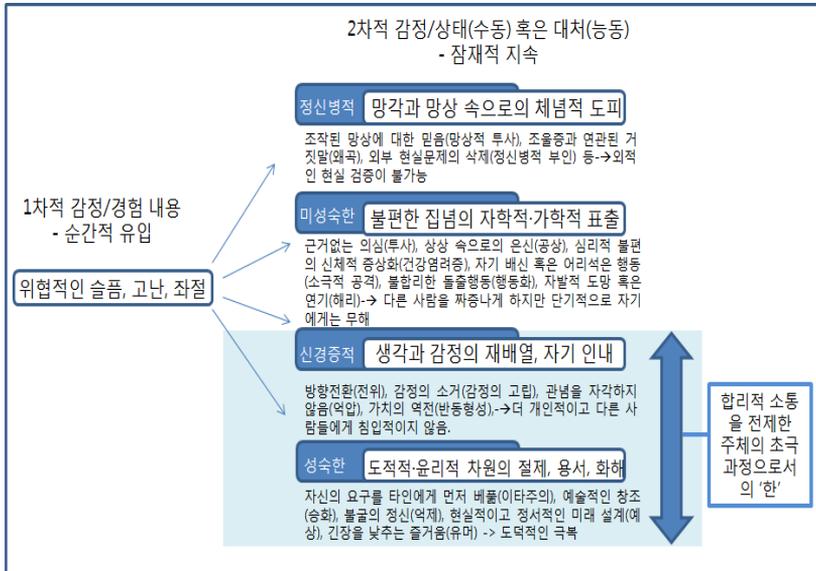
19) 아서 J. 클락, 앞의 책, 8쪽.

20) 요약부분은 다음 책 참고. 조지 베일런트, 앞의 책, 69-116쪽.

들은 관계 속에서 속임수로 나타나는 반면에, 신경증적 방어들은 생각과 감정을 창조적으로 재배열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안엔 ‘전위(displacement)’를 포함한 4개의 방어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방어는 주체가 자신과 객체, 관념, 감정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현실, 사람, 양심, 욕망이라는 네 지표 사이에서 균형적인 대처전략을 내보이는 셈이다. ‘이타주의(altruism)’를 포함한 4개의 방어가 그 예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큰 틀에서 도표 1의 분류체계를 참고하며 ‘한’의 발현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한’은 최초의 유입 감정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잔존하는 중 다른 형태의 정서구조로 옮겨갈 수도 있다. 때론 수동적 상태로 지속하고, 때론 능동적인 대처전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착안하면 ‘한’의 발현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2: 방어기제의 변별적 작동으로 보는 ‘한’의 발현과정



위의 도표는 ‘한’이라는 정서구조가 개인의 내면에서 지속성과 일정한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 착안해 그 함의를 방어기제와 관련시켜 갈래화한 것이다. 침언하면, ‘한’을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방어의 네 가지 위계에 걸쳐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과의 합리적 소통을 전제로 ‘한’을 한 개인의 초극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한’은 신경증적 방어와 성숙한 방어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규정할 수 있겠다. 유념할 것은, ‘한’이 복합적인 관념인 까닭에 여러 형태의 방어가 때론 동시적으로, 때론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을 지칭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개념적 분류와 착안점을 바탕으로 배창호의 <정>과 <길>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들의 내면에 주목하여 방어의 형태와 그 성격을 세밀하게 변별할 것이다.

### 3. <정>, 운명에 대한 포월 의지

#### － 성숙한 방어의 복합적 발현

<정>은 순천 낙안읍성, 안동 하회마을, 대구 비슬산, 대관령 등을 돌며 한국의 특징적인 사계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들에서 촬영되었다. 그러한 공간배경 속에서 배창호는 191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주목해 한국인의 정서구조를 서사적으로 탐색한다. 배창호의 부인 김유미가 직접 연기한 주인공 순이는 영화 속에서 평범한 개인이 감내하기 힘든 불행과 아픔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에 그녀가 대응하는 방식은 ‘여성잔혹극’, ‘여성수난담’으로 통칭되는 고전 서사의 관습과 중복되면서도 미묘하게 대별되는 지점이 있다.

논의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배경 정보를 좀 더 부연하면, ‘한’을 체험시키기 위해 여성 주인공의 수동적인 삶을 도구삼는 기존 서사물들과 비교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와 관련된 시대극 상당수는 권위적 가부장제와

같은 관습에 의해, 또 왜곡된 형태로 고착화 된 통념과 차별적인 유교 윤리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여성을 그리곤 했었다. 이 같은 서사물은 내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나 정치환경을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나의 서사 양식으로서 그 역사성을 약술하면, 수많은 구전 설화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으며, 개화기 이후 근대에 이르러서도 ‘신파극’이나 대중적 ‘멜로드라마’를 통해 확대·재생산되었다. 영화 역시 대중예술양식으로 매 시대 그와 같은 제재를 변주하여 왔던 바, 배창호가 흥행감독으로 이름을 날리던 1980년대엔 정진우, 이두용, 임권택, 감독<sup>21)</sup> 등에 의해 시대극 형태의 여성잔혹극이 범람했었다. 이들 영화를 관류하는 내용은, 남성적인 가부장적 질서의 폭력을 상흔으로 간직하게 된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삭임’으로서의 ‘한’이 내려앉게 되는 과정을 전시한다.

배창호의 <정> 역시 순이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스토리라인은 전통적인 여성잔혹극과 유사 형태를 보인다. 첫째, 남성과의 대타적 관계에 의해 주인공 순이가 점차 불행해진다는 점, 둘째, 불가피한 비극적 사건들의 내막에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의 관습이 놓여 있다는 점, 셋째, 억눌린 욕구, 상처받은 감정이 ‘한’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보여준다는 점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정>은 1980년대 일부 여성잔혹극 영화가 받았던 비판에서 비껴 서는 부분이 있다. 우선,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평면적으로 각색해 관객의 관음적 욕망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 여성 주인공 순이의 태도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그녀가 수동적 수용의 자세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객은

---

21) 정진우의 <빠꾸기도 밤에 우는가>(1980),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1981), <백구야 훨훨 날지마라>(1982), <자녀목>(1984), 이두용의 <피막>(1980), <여인잔혹사 물레야 물레야>(1983), 여성영화라는 틀 안에서 더 많이 언급되지만 임권택의 <씨받이>(1986) 역시 여성수난 서사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괴로운 현실에 대처하는 순이의 모습에서 자기 삶을 긍정하고 운명과 화해하려는 인간힘을 지켜보게 된다.

주목할 것은, 방금 언급한 ‘자기 삶에 대한 긍정’, ‘운명과의 화해’라는 말이 억압된 욕구, 감정, 혹은 불편한 경험들에 대한 낙관적 포월(包越)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바뀌 말해, 순이는 위협적인 슬픔과 좌절 체험 이후, 혼란 상태에 빠진 자신의 상태를 미래지향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해 가는 성숙함을 내보인다.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정>에서 중요한 전환 장면에 해당하는 세 번의 이별 순간과 그에 대한 순이의 수용·대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순이와 귀동의 이별 과정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는 멜로드라마 형태를 보여준다. 어린 순이는 아직 꼬마에 불과한 귀동과 강제로 혼인한 후 모진 시집살이와 사랑없는 신랑의 철없는 돌출행동 때문에 힘겨운 결혼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다가 귀동이 집 안으로 임신한 애인을 데리고 들어오고, 순이는 그의 변심을 오히려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스스로 집을 떠난다. 두 번째 이별은 순이와 덕순 사이에 벌어진다. 청년기의 순이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옹기장이 덕순과 동거에 들어가지만 그들의 행복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순이에게 선물할 분첩을 손에 쥔 채 덕순이 계곡물에 휩쓸려 죽은 것이다. 순이는 아름다웠던 기억이 스며있는 보금 자리와 덕순의 옹기를 그대로 두고 미소를 머금은 채 그곳을 등진다. 마지막 이별은 중년에 접어든 순이와 젊은 여자 복순 사이에 벌어진다. 추운 겨울날, 복순은 젓먹이 아들 석이를 업고 순이가 독처하는 집에 들어온다. 이후 그들은 연민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순은 석이만 남겨놓은 채 소장수의 손에 이끌려 순이를 떠나게 된다. 이후 순이는 복순의 아들 석이를 제 아들처럼 여기며 효성 지극한 대학생으로 키워낸다.

이 세 번의 이별 장면에서 순이의 대처 방식을 보면, 순이의 내면에 들어선 ‘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때론 다른 성격의 방어가 동시·작순차적으로 작동한 경우도 추측 가능하다. 다음 표는 순이가 경험한 세

번의 이별 장면에 주목해 이야기의 흐름과 그에 따른 방어의 작동 양상을 요약한 것이다.

도표 3: 주요 인물 관계에서 발현된 순이의 방어 양상

관계양상	슬픔/고난/좌절 체험	방어의 작동
순이-귀동	a. 안면도 없는 어린 신랑 귀동에게 강제로 시집을 간다. b. 시어머니로부터 혹독한 시집살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c.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d. 아기를 갖지 못해 안팎으로 고초를 겪는다. e. 서울에 갔던 귀동이 세련된 애인을 데리고 귀향한다. f. 귀동이 애인과 보리밭에 나가 밀회를 즐기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g. 귀동의 애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귀동은 어머니에게 새장가를 가겠다고 선언한다. ↓ h. 새벽에 은수저 한 벌을 챙긴 후 시댁을 떠난다.	이타주의: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남편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붙여줬다는 윤리적 만족감을 누린다. 억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자기 위치를 박탈당했다는 감정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지연시키면서 현상황으로부터 밝은 면을 찾는다.
순이-덕순	a. 혼자 기거하던 중 옹기장이 덕순에게 보쌈을 당한다. b. 보쌈당했다는 소문이 두렵기도 하고, 덕순의 순정이 느껴져 함께 살기로 작정한다. c. 함께 산 속에서 생활하며 부부생활의 행복을 알아간다. d. 폭우가 쏟아지는 날, 장터에서 술에 취한 덕순이 불어난 계곡을 건너다 휩쓸려 죽는다. e. 죽은 덕순의 손에서 자신에게 선물할 요량으로 장만한 분첩을 발견한다. ↓ e. 남편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 스민 옹기를 바라보며 덕순의 집을 떠난다.	억제: 덕순은 죽었지만, 마지막까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현상황에 이르는 과정에서 긍정의 여지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낙관한다.
순이-복녀	a. 엄동설한에 젓먹이 석이를 데리고 복녀가 혼자 사는 집에 잠입한다. b. 복녀가 소작농 남편의 노름빚 때문에 소장수에게 팔려갔다가 자기 집으로 도망 온 것을 알게 된다. c. 자신의 곤궁한 형편을 생각해 복녀가 몰래 몸을 팔아 먹을 것을 구해 온다. d. 소장수가 복녀와 석이를 데리러 집에 들이닥치자 은수저를 챙겨주며 복녀와 석이를 몰래 도망치게 한다. ↓ e. 결국 소장수에게 붙잡힌 복녀가 석이와 은수저를 순이 편에 맡기고 울먹이며 떠나간다.	예상: 석이를 친아들로 받아들인 후 현실을 용인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설계해 간다.

114분의 런닝타임 동안 50여년의 세월이 비약적으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주요 사건에 대응하는 순이 내면의 방어를 완벽하게 읽는 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몇몇 대사와 행동을 통해 순이의 감정과 욕구가 어떤 과정으로 조절되고 관리됐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먼저, 귀동과 이별을 결심하는 순이의 내면을 보면 성숙한 방어의 한 양상으로서 ‘이타주의’의 성격이 뚜렷하다. 이별의 단초는, 귀동이 서울에서 애인을 데리고 오면서부터 예감된다. 그런데 순이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보리밭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귀동과 애인의 모습을 목격한 순간,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래는 그 상황에 대한 순이의 내레이션을 소개한다.

참말로 요상한 것이 사람 땀이더라 말어요. 역장이 무너져도 시원찮을 판인데, 두 사람이 그라고 있는 것이 하나도 밍게 보이지가 않더라 말이지. 그날따라 유난히도 환한 달빛아래 서로 보듬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막힌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아, 어느새 내 처지는 싹 잊어버리고 서로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의 땀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 말이지. 얼마나 서로 좋아하면 저럴까 싶고 외려 두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더라(22)

첨언하면, 순이는 보리밭 밀회신을 목격한 이후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이후 귀동의 애인이 아기를 임신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 귀동 애인의 입장을 헤아려보면, 그녀는 서울에서 곱게 자랐으나 귀동을 믿고 지방까지 내려 온 상황인데다, 유부남인 귀동의 아기를 임신한 상태다.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면, 치매로 정신이 나고 드는 상태에서조차 자신에게 손주가 없다는 현실을 항상 괴로워하던 터였다. 남편 귀동의 입장을 보면, 순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 사랑없는 결혼생활을 억지로 이어오고 있었다.

---

22) 영화 속 순이의 실제 대사 인용

결국, 순이가 새벽녘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선택은 모든 면에서 최대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연루된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윤리적 희생을 자처한 것이 된다. 이는 성숙한 방어로서 ‘이타주의’의 작동과 다름 아니다. 순이의 결단은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행위인 것이다. 이를 신경증적 방어인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과 구별해 보자면, 부분적이거나 그 스스로도 만족하는 선택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자기의 느낌이 객체에게로 돌려진다는 점에서 ‘투사’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순이의 경우 귀인(歸因)이 공감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촉발되지 않으며 자기 효능감도 느끼게 된다.<sup>23)</sup>

그와 동시에 다른 성숙한 방어인 ‘억제’의 작동도 일어난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자기 위치를 박탈당했다는 감정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희석시키면서 진정한 행복의 순간을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지연시킨 정황이 읽히기 때문이다. 순이가 시댁을 스스로 등지는 과정을 신경증적 방어인 ‘억압’으로 보지 않은 까닭은,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만족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귀동과 이별한 순이의 내면에서는 ‘이타주의’와 ‘억제’의 작동이 일어난다. 배창호는 <정>을 화두로 한 여러 방송과 지면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가 ‘한’이 아니라 ‘정(情)’일 때가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연결하면, 문제적 현실과 화해하면서 윤리적 주체로 나아간 순이의 행동을 ‘정’의 현실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청년기를 지난 순이가 덕순과 더불어 보낸 세월은 여성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배창호는 그들의 서로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면서 ‘이상적 사랑’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술에 취한 덕순이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죽자 물리적으로 그들의 사랑은 단절되고 만다. 사실상 이러한 귀결은 이상적인 수준의 사랑을 영원으로 연장하기 위한 신과 멜로드라마의 클리셰(Cliché)로 통한다. 사랑의 감정이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 한 인물이 죽는다는 건, 그들 간의 사랑이 훼손되지 않은 채

23) 조지 베일런트, 앞의 책, 106-107쪽.

기억 속에서 영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순이가 견뎌내는 과정도 ‘억제’의 작동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일단 순이는 죽은 덕순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긍정하려한다. 예컨대, 순이가 덕순과의 보금자리를 등질 때, 덕순이 자기를 위해 만든 웅기들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 ‘해리(dissociation)’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긍정의 요소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복녀와의 이별 이후 순이의 태도를 보면, 이중적인 심리가 읽힌다. 먼저 복녀 역시 남편의 노름빚 때문에 소장수에게 팔려가 팔시와 학대를 받아 왔다. 순이는 그런 그녀와 동거하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 있었고 그녀를 보살피주면서 또한 기댈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장수에게 다시 납치되어 복녀가 떠나게 되자, 순이는 복녀를 향한 필요의 욕구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때 복녀가 맡긴 그녀의 아들 석이는 복녀와 관련된 모든 열망에 인접한 대상이 된다. 이후 순이는 석이를 친아들 삼아 복녀를 향했던 리비도(libido)를 전환한다.

그 즈음에서 이 영화는 플래시포워드(flashforward)로 20여년을 건너뛴다.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석이는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사는 순이를 찾아온다. 순이는 그렇게 젓먹이 석이를 평생 뒷바라지해 듬직하고 효성 깊은 청년으로 성장시켰다. 이후의 씬들은 순이와 석이의 단란한 모자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그간 순이가 석이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설계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한마디로 순이는 복녀에 대한 연민과 자기 인생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석이에게 투영한 채 살아온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불명료하지만, 방어로서 ‘예상(anticipation)’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자식이 없던 순이의 삶을 생각할 때, 석이는 일종의 선물이면서 큰 부담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때문에 석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감정적인 슬픔과 고통을 희석시켜가는 과정과 일정한 인지적 계획을 실천해 가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젓먹이 석이를 떠안게 된 순이는 버거운 미래를 예감하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정

서가가 실린 가족관계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처럼 방어로써 ‘예상’은 불안에 대한 현명한 자기면역 기술의 일종으로, 모든 성숙한 방어 중에서 안팎의 현실을 가장 적게 변경시킨다.

영화 속에서 순이는 어린 시절부터 괴롭고 절망적인 순간이 닥칠 때마다 『장화홍련전』을 습관적으로 읽는다. 그러한 장면을 통해 관객은 순이의 내면 상황을 민족 고유의 정서구조로 신화화 된 ‘한’으로 통칭하게 된다.<sup>25)</sup> 그런데 이때의 ‘한’을 개인 심리의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타주의’, ‘억제’, ‘예상’과 같은 다양한 방어기제가 복합적으로 발현한 양상을 진단할 수 있었다. 순이는 불가피한 좌절의 순간에 때론 도덕적·윤리적 주체로 거듭나면서, 또 절망적인 현실을 포월하면서 자기 운명과 화해해 온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억압된 욕구나 감정, 좌절의 경험을 ‘한’이라는 용어로 환원하는 관습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할 것이다.

#### 4. <길>, 불가능한 용서를 위한 자기 초극

##### — 변별적 방어의 순차적 작동

배창호가 <정> 이후 5년 만에 내놓은 <길>은, 그의 1990년대 이전 대표작들에서 두드러진 로드무비 형식을 더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그러나 기획 의도나 서사적 특징, 한국적인 미장센으로 승화된 아트 디렉션(art direction) 등을 보면 연출의 측면에서 <정>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인상을 준다. 우선적으로, <길> 역시 한국적 풍광을 끌어안은 공간배경 시각화에 공을 들였다.<sup>26)</sup> 시대적으로는, 주인공의 기억 속 장면의 경우

24) 동일 문단 ‘예상’에 대한 해석은 다음 부분 참고 조지 베일런트, 앞의 책, 119-121쪽.

25) 『장화홍련전』은 조선시대에 평안도에서 있었던 사실담을 소재로 한문본, 국한문본, 한글필사본, 한글목판본 등으로 광범위하게 전해져 왔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인공이 관장의 올바른 처분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일종의 공안류소설 公案類小說이면서 가정형계모소설 家庭型繼母小說의 전형을 보여준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간접적 가해자이거나 무기력하게 그려진다는 점, 미래를 낙관하며 권선징악으로 귀결되는 보편적인 고전서사와 달리 비극적 정서가 두드러진다는 점, 그럼에도 부계혈통이 강조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서사적 현재를 1970년대로 설정함으로써 <정>의 서사가 끝난 시점에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편, <정>이 덕순을 통해 옹기장이의 삶과 한국 특유의 장터 풍경을 부분적으로 재현했다면, <길>은 주인공 태석을 장돌뱅이 대장장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적 공간으로서 ‘장터’와 장인의 생활상을 더욱 전면화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 역시 한국인에게 자리한 ‘한’의 정서구조를 다각도로 보여주는 서사를 실천한다는 점이다. 단순 소재에 주목하면, <정>에서 비극적 사랑을 환기시켰던 ‘분첩’이 비슷한 정서를 견인하는 도구로 <길>에서도 등장한다. 또한 두 영화 모두 한국인 특유의 정서를 보여주는 전통 서사물을 활용해 주인공의 삶을 상대화 보도록 유도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에서의 순이는 사실담을 소재로 한 『장화홍련전』을 읽으며, 불운한 자기 처지를 관객에게 공명시켰다. 예컨대, 『장화홍련전』은 시집살이가 힘들 때, 달빛 비치는 귀동의 집 헛간에서 순이가 몰래 꺼내 읽는 책이었다. 덕순과 살 땀, 그를 옆에 두고 한 대목을 읽어주기도 한다. 상처로 점철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공유한 복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장화홍련전』은 그들을 내적으로 연결하는 도구가 된다. 또 서울에서 대학생이 된 석이가 내려온 순간에도 순이는 『장화홍련전』을 읽는다. 이를 통해 배창호는 순이의 내면에 고인 정서구조에 역사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길>에서도 내용은 다르지만,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가 등장하는 바, <춘향가>의 한 대목인 ‘사랑가’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석이 주변 인물들과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는 순간엔 ‘사랑가’가 각자의 발성으로 읊어진다. 물론 <정>에 등장하는 『장화홍련전』과 유의미한 차이도 있다. 이를테면, 『장화홍련전』의 서사와 순이의 삶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유사중첩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가’의 가사는 태석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

26) 강원도 태백과 대관령, 경북 안동, 전남 함평 5일장, 지리산과 섬진강, 전북 번산반도와 곰소 염전 등을 돌며 촬영되었다.

지속적으로 낙차를 만들어 낸다. 한마디로 <길>에서의 ‘사랑가’는 ‘낭만적 아이러니(romantic irony)’를 전하는 좀 더 심미적인 장치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길>을 <정>과의 일관된 맥락에서 읽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태석 역시 세 명의 주변 인물들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한’으로 통칭되어 온 정서구조를 변별적으로 체화하기 때문이다. 세 명의 인물은 각각 죽마고우 득수와 득수의 딸 신영,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다.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태석은 체념과 비애, 원망과 한탄, 억울함과 허무감 등이 응집된 ‘한’을 얻는다. 그 속성을 서사 진행에 따라 자세하게 변별해내기 위해선, 태석이 주변 인물들에게 품었던 최초의 감정, 욕구, 충동과 그들을 떠나보낸 이후의 내면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태석과 주변 인물들 사이의 에피소드와 그에 따른 방어의 작동 양상을 요약한 것이다.

도표 4: 주요 인물 관계에서 발현된 태석의 방어 양상

관계양상	슬픔/고난/좌절 체험	방어의 작동
태석-신영	a. 한겨울,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서 스마일 배지를 가슴에 단 모자라 보이는 처녀 신영을 만난다. b.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고된 삶을 견디다 아끼까지 지우고 뇌전증을 얻은 신영의 처지를 이해하게 된다. c. 여관방에서 겁탈을 당하려다 발작을 하게 된 신영을 보살펴 준다. d. 신영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철천지원수로 떨어진 옛친구 득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e. 득수에 대한 원한에도 불구하고 신영을 내버리지 못한 채, 겨울산행에 대비해 솜바지와 털신을 사준다. f. 신영이 득수의 장례에 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모아 둔 돈을 내놓는다. g. 득수에 대한 원망의 기억을 갖고 있는 신영을 다독이며 용서해주라고 한다. h. 신영과 함께 상주 역할까지 하며 득수의 장례를 치러준다.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i. 신영과 헤어지는 날, 차표와 요기할 음식은 물론, 앞으로 기술을 배우라며 남은 돈뭉치를 챙겨주고 추억이 담긴 분첩을 받는다.	전위: 신영이 득수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득수에 대한 원한이 신영에게로 옮겨져 분노와 갈등이 표출된다. ▼ 이타주의: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신영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영을 축복하고 더 윤리적인 입장에서 편안함을 누린다.

관계양상	슬픔/고난/좌절 체험	방어의 작동
태석-아내	<p>a. 힘든 장돌뱅이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와 영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p> <p>b. 집을 팔아 대장간을 차려 정착하자는 아내의 청을 거절하며 득수가 사준 분첩을 아내에게 선물한다.</p> <p>c. 득수의 노름빚을 해결하려다 4년을 감옥에서 산 후 그리운 아내와 영식이 있는 고향으로 향한다.</p> <p>d. 득수와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그 길로 집을 등진 후 오염한다.</p> <p>e. 죽은 득수의 집에서 득수가 남긴 편지를 읽고, 기억 속 불륜 장면에 대한 오해를 풀다.(득수가 아내를 일방적으로 겁탈하려 한 것이었다)</p> <p>f. 아내와 영식을 만나러 긴 세월 찾지 않았던 고향집을 찾아 간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g. 아버지를 기억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멀리서 지켜본 후 신영에게서 건네받은 분첩을 두고 나온다.</p>	<p>반동형성: 사랑했기에 소중했던 아내의 가치를 역전한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감정을 보존하지만 그 이미지가 소중한 만큼, 지금의 아내는 불쾌로 규정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역제: 아내에 대한 오해가 사라진 후 아내와 영식의 행복한 현재를 깨뜨리지 않고 감동적인 해후를 기억한다.</p>
태석-득수	<p>a. 함께 장터들을 돌며 장돌뱅이 생활을 한다.</p> <p>b. 어느 날, 20만원을 빌려 달라는 득수에게 난색을 표하자 득수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p> <p>c. 득수의 집에 찾아가 집문서를 주면서 필요한 돈을 빌려 쓰라고 건넨다.</p> <p>d. 득수가 노름을 하다가 설레꾼들에게 돈을 털리고 강물에 빠져 죽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p> <p>e. 자살하려던 득수를 가까스로 살리지만, 득수가 노름으로 태석의 집문서를 날린 사실을 알게 된다.</p> <p>f. 집문서를 돌려받기 위해 노름패를 찾아가 빌다가 급기야 상대를 낮으로 찌르게 된다.</p> <p>g. 4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귀향한 날, 득수와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고향을 등진다.</p> <p>h.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득수의 딸 신영을 만나 득수의 죽음 소식을 듣는다.</p> <p>i. 득수의 집을 찾아가 득수가 자기 앞으로 남긴 편지들을 읽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j. 득수의 장례를 제 손으로 치러 준다.</p>	<p>승화: 고통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단순히 소멸시키거나(행동화) 억누르는 대신(반동형성) 더 완벽한 대장장이로서의 삶에 투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이타주의: 죽은 후 도착한 득수의 편지를 읽으며, 득수에 대한 증오를 그에 대한 연민으로 전환한 후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을 축복한다.</p>

<길>에서 서사적 ‘현재’를 함께 보내는 인물은 태석과 신영이다. 태석의 입장에서 보면, 신영은 억눌러 온 기억 속 장면들을 불러내 슬픔을 현재화시키는 매개가 된다. 그들 간의 관계의 변화를 방어의 순차적 작동으로 풀어낸다면,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방어인 ‘전위’에서 성숙한 방어인 ‘이타주의’로의 전환이 감지된다. 예컨대, 태석은 신영의 딱한 처지에 공감해 갈 무렵, 그녀의 아버지가 득수라는 정보를 얻게 된다. 플래시백(flashback)으로 뒤늦게 관객에게 공지되는 태석의 득수에 대한 배신감과 원한은 치명적이고 극단적이다. 득수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전에 태석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손 데지 않았던 집문서를 득수에게 빌려줄 정도로 그를 믿었었다. 결국 태석은 감당하기 벅찬 절망에 사무쳐 득수와 아내를 등지게 된다.

그 때문에 신영이 득수의 딸임을 알게 된 직후의 태석은 득수에 대한 분노와 갈등을 신영에게 투영한다. 예컨대, 태석은 신영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핀잔을 주고, 급기야 떨쳐내려 한다. 득수와의 관계에서 응어리진 불쾌한 기분과 충동을 좀 덜 위협적이면서 인접한 대상인 신영에게 돌리는 셈이다. 이는 명백하게 ‘전위’의 한 예가 된다.

그러나 득수의 장례식을 함께 치른 후, 신영을 떠나보낼 때의 ‘태석-신영’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태석이 죽은 득수를 사후적으로 용서한 순간, 신영이 원수의 딸이라는 상징적 지위에서 벗어난 것이다. 신영 역시 득수로부터 정서적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태석이 신영을 감싸면서 스스로를 연민한 것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아픔을 간직한 신영에게 긍정적인 아버지상을 심어주며 태석이 더욱 도덕적인 주체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성숙한 방어로서 ‘이타주의’의 작동이 분명하게 읽히는 셈이다.

태석과 그의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형태의 방어가 순차적으로 작동한 양상이 읽힌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시절, 태석의 내면엔 그 고통과 절연하기 위한 방어가 작동했다. 태석은 아내를 사랑했던 것만큼 아내의 불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따라서 태석은 아내의 가치를 역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동형성’의 작동으로 볼 수 있는 바, 태석은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감정은 보존하지만, 아내와 연관된 모든 정보를 불쾌로 여기기 시작한다. 이때의 ‘반동형성’은 자기기만이나 ‘해리’와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내적인 느낌이나 관념을 속이지 않고 알아차리면서<sup>27)</sup>, 그 가치만을 전복시킨다는 데 있다.

이후 아내가 득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오해가 풀린 후, 태석은 아내, 영식과 더불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집으로 향한다. 그는 집 앞에서 자기 이름이 적힌 문패가 아직 걸려있는 것을 보고, 영식과 아내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때 태석은 20여 년 전 득수로부터 받아 아내에게 선물했던 분첩을 몰래 집 앞에 두고 나온다. 이 행동은 아내와 더불어 가장 완전했던 시절을 복원하고픈 내면의 욕구를 잘 보여준다. 것처럼 태석은 아내와 영식의 행복한 현재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돌아올 여지를 스스로에게 남겨둔다. 이처럼 만족을 지연시키며 아내에게 천천히 접근해가려는 태석의 태도를 추론해 보면, 성숙한 방어로서 ‘억제’의 작동을 읽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득수와와의 관계망 안에서 발현된 태석의 방어들을 살펴볼 도록 하겠다. 먼저 태석은 죽마고우였던 득수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빼앗아갔다는 배신감에 오염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것이다. 이때 일종의 면역 체계처럼 고통을 여과할 수 있는 성숙한 방어가 작동한다. ‘승화(sublim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승화’는 고통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단순히 소멸시키거나(행동화) 억누르는 대신(반동형성)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비도를 급격하게 전환하는 내면의 대응전략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태석은 완벽한 대장장이로서의 삶을 추구한다.

그러다가 죽은 득수의 집에서 목계 된 날, 용서의 형태로 ‘이타주의’를 실천한다. 죽은 득수가 자기에게 부치지 못하고 모아둔 편지를 읽으면서

---

27) 조지 베일런트, 앞의 책, 103쪽.

득수에 대한 증오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석은 죽은 득수의 저승가는 길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의 응어리진 과거와도 화해한다. 결과적으로, 태석은 득수와 신영에게 가장 좋은 도덕적 위치를 점한 후, 자기 효능감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구원한다. 이때의 ‘이타주의’를 완벽한 자유의지의 산물로 볼 순 없겠지만<sup>28)</sup> 그 덕분에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가 선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태석이 내면화 한 ‘한’은 여러 가지 방어의 순차적 작동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 ‘전위’에서 ‘이타주의’로, ‘반동형성’에서 ‘억제’로, ‘승화’에서 ‘이타주의’로 방어가 작동해 가면서, 태석은 자아의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서사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용서를 위한 자기 초극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지금까지 작가주의 감독으로 변모한 후기 배창호의 대표작인 <정>과 <길>을 대상으로 ‘한’의 정서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그동안 ‘한’은 변별적인 속성들을 끌어안은 거대한 관념어로, 또 한국인 고유의 정서구조로 단순하게 환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한’은 자기면역력을 기르기 위해 자아가 삶을 보존하기 위한 정서구조로 판단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논지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아 심리학의 관점에서 방어의 위계를 구분한 논의를 참고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에게 ‘신화화/탈신화화’의 대상으로 역설적 개념어가 된 ‘한’을 다양한 방어의 발현양상으로 읽어낼 수 있었다.

<정>에서 순이에게 내면화 된 ‘한’은 성숙한 방어의 복합적인 작동에 해당했다. 순이가 세 번의 이별을 통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때, ‘이타주의’, ‘억제’, ‘예상’과 같은 다양한 방어가 발현된 것이다. 이를 통해, 순이는 도덕적·윤리적 주체로 거듭났으며, 절망적인 자기 현실을 포월하며 운명

---

28) 조지 베일런트, 앞의 책, 107쪽.

과 화해할 수 있었다.

<길>에서 태석이 수용한 ‘한’은 변별적인 방어의 순차적 작동으로 볼 수 있었다. 태석의 주요인물에 대한 관계가 단절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각각 ‘전위’에서 ‘이타주의’로, ‘반동형성’에서 ‘억제’로, ‘승화’에서 ‘이타주의’로 방어가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러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태석은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실천했고, 어긋나고 억눌린 과거의 경험들을 초극할 수 있었다.

‘한’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학문적 배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향후 영화와 같은 서사물을 경유해 ‘한’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해명하는 연구가 확대되어 가길 기대한다.

### 기초자료

배창호, <정>, 배창호프로덕션, 1999.

배창호, <길>, 이산프로덕션, 2004.

### 논문 및 저서

가세 히데야끼, 『한의 한국인, 황공해하는 일본인』, 한국브리태니커 편  
집실 역, 한국 브리태니커, 1988.

고영건·김진영, 「한국인의 정서적 지혜- 한의 삭힘」, 『정신문화연구』 제  
28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9.

고 은, 「한의 극복을 위하여」, 서광선 편, 『한의 이야기』, 보리, 1988.

김수남, 「배창호의 작품세계론: 감상주의의 정체성 탐구」, 『영화교육연  
구』 5권, 한국영화교육학회, 2003.

김열규, 『한국인 우리들은 누구인가』, 자유문화사, 1988.

김지석, 「<황진이>를 통해서 본 배창호 감독의 철학적 탐험과 미학적  
모험」, 『영화언어』 10호, 1992.

김지석, 「낭만적 탐색자: 배창호 감독론」, 『영화연구』 9호, 한국영화학회,  
1993

김진 외, 『한의 학제적 연구』, 철학과 현실사, 2004.

문순태, 「한이란 무엇인가」, 서광선 편, 『한의 이야기』, 보리, 1988.

민성길, 「환병과 한」, 『대한의학협회지』 제34권 11호, 대한의학협회,  
1991.

\_\_\_\_\_, 「한의 정신병리학」, 라깡정신분석연구회 편, 『코리안 이마고』,  
인간사상, 1998.

아서 J. 클락,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가족  
치료연구소, 2005.

여동찬, 『이방인이 본 한국, 한국인』, 중앙일보사 부설경제문제연구소,

1987.

오영희, 「용서를 통한 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7권 1호, 한국심리학회, 1995.

이일환, 「사랑의 추구자- 배창호」, 『영상영어교육』 2권 2호, 영상영어교육학회, 2001.

조지 베일런트, 『행복의 지도』, 김진영·고영건 역, 학지사, 2013.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4.

한완상·김성기, 「한에 대한 민중사회론적 시론-종교 및 예술체험을 중심으로」, 김진균 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이론』, 한길사, 1987.

Ko, Young-gun, Salovey, Peter, Kim, Jin-young, “Sakhim of Han as a mature suppression: Implications for cancer patients’ emotional coping”,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2004.

Vaillant, G. E., Bond M., & Vaillant, C.,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1986.

〈Abstract〉

Reinterpretation about ‘Han’ in the latter compositions  
of Bae Chang Ho

– reading the structure of emotions in <My Heart> and <Road> through  
defense mechanisms

Ahn, Soongbeum  
(Konkuk university)

This writing is about Chang-Ho Bae’s films <My Heart> 1999 and <Road> 2004, which are rated on its attempt to reinterpret ‘Han’ through the Korean background and elements. Until now, discussions on the concept and properties of ‘Han’ have been accumulating. This writing constructively carries over recent arguments on self-psychology and apprehends ‘Han’ as an aspect of ‘defense mechanism’ used by the self to resolve repressed inner desires and uncomfortable emotions.

This research on ‘han’, is distinguishable from precedent researches that described ‘Han’ as a defense mechanism.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Han’ is not of equivalence relation with a defense. Instead, the hypothesis on the dynamically revealing condition of distinguishing defense(s) is applied. In other words, when the process of calming and relieving the feeling of ‘Han’ are included, we are able to understand it as results of various defenses operating individually, sequentially or simultaneous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As a result, after analyzing the two movies, it is confirmed that the internalized ‘Han’ felt by Soon-Yi in <My Heart> is the complex revealing condition of mature defense. Specifically, Soon-Yi is reborn as an ethical and moral subject

through defense such as ‘altruism’, ‘suppression’, and ‘anticipation’, and reconciles with her fate by accepting and overcoming with her hopeless reality. On the other hand, the ‘Han’ acknowledged by Tae-Seok in <Road> can be seen as a sequential process of distinctive defenses. Focusing on the character relationships of Tae-Seok, aspects of defenses transitioning from ‘displacement’ to ‘altruism’, ‘reaction formation’ to ‘suppression’ and ‘sublimation’ to ‘altruism’ is found. Within these internal changes, although ‘forgiveness’ seemed impossible, Tae-Seok overcomes the experiences of his repressed past.

**Key words:** Han, structure of feelings, defense mechanism, self-psychology, Bae Chang-Ho, <My Heart>, <Road>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